

월드컵 석 달 전인데... 흥명보호, 중원 미완 상태에 황인범까지 이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흥명보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중원 방정식 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우측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 3월 A매치 소집에서 제외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흥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3월 A매치에 함께할 27인의 명단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FIFA 랭킹 22위' 한국은 28일 오후 11시 영국 밀턴 킨스의 스타디움 MK에서 '37위' 코르티부아르, 4월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24위'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개막할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를 황인범 없이 치르게 됐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황인범이 시즌 아웃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천만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0일 뉴시스를 통해

3월28일 코르티부아르-4월1일 오스트리아 상대

3월 A매치 앞두고 중원 핵심 황인범 소집 불발

"심각한 부상은 아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외"

황인범과 관련해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조금 무리하면) 2번째 경기에 나설 수도 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해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체 선수를 발탁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난번에도 황인범이 합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한 명을 더 뽑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범이 이탈한 흥명보호 중원에는 권혁규(카를스루에), 김진규(전북), 박진섭(저장), 백승호(버밍엄),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등이 있다.

측면은 물론 중앙까지 소화할 수 있는 흥명석(헨트)도 고려해 볼 선택지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은 좀 더 실험해야 하고 조합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흥 감독은 월드컵 개막 전까지 계속 중

원 퍼즐을 고민할 전망이다. 실제로 흥 감독은 북중미행을 확정 지은 뒤 여러 미드필더를 발탁하고 조합하며 힘을 쏟았다.

지난해 9월 A매치 미국전에선 백승호-김진규, 멕시코전에선 카스트로프-박용우(알아인)가 허리를 지켰다.

10월 브라질과 맞대결에선 황인범-백승호,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황인범-김진규 조합이 가동됐다.

11월 볼리비아전에선 김진규-원두재(코르 파칸), 가나전에선 권혁규-카스트로프가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박용우가 무릎 십자인대, 원두재가 어깨 부상으로 월드컵에 동행할 수 없게 된 데 이어 황인범까지 잦은 부상을 당하며 흥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진섭 한 명이라는 점도 우려



흥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코리아 풋볼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3월 유럽원정 평가전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된다. 지난해 9월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권혁규도 있지만, 11월 가나전을 통해 이제

막 A매치에 데뷔한 만큼 월드컵에서 제기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황인범 없이 치를 코르티부아르전과 오

스트리아전은 오랜 기간 최적의 중원 조합을 찾아 헤메는 흥명보호에 있어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이다. /뉴시스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준비 박차

교통통제와 우회로 확보 등 안전한 행사 개최 준비

장흥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0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중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흥군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전 9시 20분 개회식을 시작

로, 10시 하프코스를 선두로 단축코스과 건강코스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탐진강변을 출발한다.

군과 마라톤연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장흥교 로터리에서 부산은행정북지센터까지 거쳐 강진군 오후삼거리에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우회로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대회에 앞서 코스 내 시설물 정비와 환경 정비를 완료했으며, 부산면·유치면 이장단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통 통제에 대한 사전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

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량과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재차 점검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장흥병원, 장흥우리병원, 원광대학교 통합한방병원 등 지역 주요 기관과 단체들도

대회 운영 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국의 마라톤러들이 정남진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안전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교통 통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커스테이션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흥 GS건설
이원화/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본격 봄배구 시작... 25~26시즌 챔피언 향한 마지막 여정

사상 첫 여자부 준PO... 24일 장흥서 GS-흥국 단판 맞대결 '리그 3위' KB손해보- '상승세' 우리카드, 25일 남자부 준PO

2025~2026시즌 V-리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개월간 이어진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친 프로배구는 이제 트로피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들어간다.

진여 2025~2026 V-리그 포스트 시즌은 오는 2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여자부 준플레이오프(준PO)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남자부는 이튿날인 25일 KB손해보와 우리카드의 준PO 경기로 봄배구에 들어간다.

여자배구에서 준PO가 열리는 것은 역대 최후다. 준PO는 정규리그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내일 시에 실시한다.

올 시즌 남녀 배구 모두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3위 GS칼텍스부터 4위 흥국생명, 5위 IBK기업은행까지 모두 승점 57을 기록, 승수와 세트득실을 따져 순위권 순위가 가려졌다.

GS칼텍스의 경우 2020~2021시즌 이후 5시즌 만에 다시 봄배구 무대를 밟는다.

지난 시즌 전반기 무려 14연패 늪에 빠지며 깊은 시련을 겪었던 GS칼텍스는 올 시즌 중반 상승세에 오르며 포스트시즌 진출을 일궜다.

V-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 실바의 존재 자체가 GS칼텍스의 최대 무기다.

실바는 올 시즌 공격종합(47.33%), 킥오픈(54.16%), 이동(60.00%) 1위, 서브(세트당 0.309개), 후위(47.15%)에선 2위에 오르며 말 그대로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올 시즌 홀로 1083점을 작성하며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은 물론 3시즌 연속 1000득점을 넘기는 대기록까지 작성했다.

일명 '요시하라 매직'이라 불리며 시즌 중반 선두까지 위협했던 흥국생명은 다소 힘이 빠졌다.

탄탄한 조직력과 끈질긴 수비를 자랑하며 상승세를 탔으나, 외국인 에이스 레베카가 다소 주춤하면서 순위가 조금 밀렸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엔 리그 최고의 미들블로커가 버티고 있다. 속공 1위(53.54%), 블로킹 5위(세트당 0.629개)를 자랑하는 이다현은 봄에도 흥국생명의 분위기를 책임질 예정이다.

남자부 역시 시즌 최종전에서야 순위표가 확정될 만큼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시즌 절반을 감독대행 체제로 치렀다.

전반기를 3위로 마쳤던 KB손해보는 순위를 지켰고, 봄배구와 떨어진 듯 보였던 우리카드는 돌풍을 일으켰다.

KB손해보는 세터 황택의를 비롯해 나경복, 임성진, 그리고 특급 에이스 비에나 등 탄탄한 공격수 라인업을 자랑한다.

경기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만 좋으면 어느 팀보다 쉽게 막을 수 없다.

우리카드는 현재 남자배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이다. 후반기 승률은 무려 78%에 달한다.

에이스 아라우조는 5. 6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올랐고, 아시아쿼터 알리도 리그 정상급이다.

여기에 세터 한태준부터 김지한, 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과 GS칼텍스 서울KIX의 경기,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며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GS칼텍스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뉴시스

상현, 박진우 등 세대 조화를 이룬 공격진에 리베로 오재성과 김영준도 뒤를 탄탄히 받치고 있다. 박철우 대형 체제 '월경 무패'라는 기세도 만만치 않다.

올 시즌 두 팀의 상대전적은 4승 2패로 KB손해보가 앞선다. 시즌 막판 5. 6라운드 맞대결에선 모두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고간 끝에 1승 1패를 나눠가졌다.

준PO가 끝나면 팀 틀 없이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단판으로 치르는 준PO에서 승리한 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정규리그 2위 팀과 3전2선승제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이동을 고려하면 사실상 여유는 하무도 없다.

여자부 PO는 오는 26일부터 수원에서 열린다. 2위 현대건설이 기다리고 있다. 이후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은 다음 달 1일 김천에서 시작한다. PO 승자는 정규시즌 1위 팀 한국도로공사와 맞붙는다.

KB손해보와 우리카드의 준PO 승자는 오는 27일 천안에서 현대캐피탈과 PO 1차전을 치른다.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는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은 4월2일부터 시작한다. /뉴시스